

# 지역 중기 제품에 귀 막고 문 닫는 공공기관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실태조사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지역 중소기업 대다수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도 반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주·전남 공공기관에 납품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19.0%가 '입찰 자격 및 계약 조건이 까다로움'을 꼽았다. 이어 '공공기관의 구매정보를 얻기 어려움'(18.7%), '중소기업자 간 과당 경쟁'(17.3%), '발주 물량 감소'(14.4%)가 뒤를 이었다.

상당수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 및 계약 조건을

## 입찰 자격·계약 조건 까다롭고 구매정보 얻기 어려워 납품 애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계약금액 조정 요구해도 대부분 반영 안돼 "지역 중기제품 우선 구매 의무 비율 법제화 등 보완책 시급해"

맞추기 힘들어하고, 구매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는 점에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계약 절차와 구매 제도 등에 대한 초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요구사항 수용 정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함'과 '일부만 반영' 된다는 응답이 무려 83.5%에 달했다. '전부 반영'은 16.5%에 그쳤다.

적정한 계약 단가를 보장 받지 못한 주요사유로는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어 변경이 어려움'(17.7%)이 가장 많았고,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 하락'(16.8%), '원자재·인건비 등 인상분 미반영'(14.2%)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용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다'(56.7%), '활용이 부족하다'(23.1%), '적극 활용한다'(20.2%) 순이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타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노력에 대한 체감도는 '어느 정도 노력한다'(63.0%), '노력하지 않는다'(22.6%), '매우 노력한다'(14.4%)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 지원'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최우선으로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 적극 조정'(16.9%), '상생 협력 기금 등 자금지원'(15.3%), '계약의 공정성 준수'(11.0%) 순이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가 62.5%, '노력하지 않는다'가 37.5%로 나타났다.

인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난해 6월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10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협동조합계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역상생 협의체도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지역 제품 구매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인식과 판로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제도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율로 채용하는 것처럼 지역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30% 이상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8%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 의무화'(18.9%),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강화'(18.2%), '조합추천 수의계약 등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추천 구매제도 활용'(17.1%)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이 관내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지역 제품을 구매 가능하다"며 "이와 동시에 협동조합을 통해 적정한 품질과 납품을 검증 받아 구매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다. 지역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창사 이래 최대 매출 4조2700억 목표"

## 정일택 사장 취임 2년... 노사 상생 속 경영정상화 속도

금호타이어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매출액 4조2700억원을 목표로 수립했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물류 대란과 원자재 상승 등 악재속에서도 글로벌 고인차 판매 비중 확대 및 비용 절감 노력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8% 상승한 3조559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231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개선된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한 프리미엄 제품 공급, 글로벌 유통 확대,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금호타이어는 분석했다.

이처럼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정일택

사장 취임 2년여 만의 성과로, 책임경영 체제 아래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가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올해를 '매출 증대의 해'로 삼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인 4조2700억원의 목표를 수립하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영 안정화와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만큼, 판매 증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 온 통상임금 소송도 마무리해 노사관계에 불확실성도 털어냈다. 경기침체, 차입금 만기도래, 유동성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 직면했지

만, 원만한 교섭을 통해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에 대해 정일택 사장의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이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정 사장은 현장 경영을 실천하고 직원들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분쟁으로 얼어붙었던 노조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낮은 자세로 임했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는 국내외 완성차업체 공급 물량 확대 및 판매 채널 다변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할 것"이라며 "고수의 제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고, 판매단가 인상과 내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봄꽃 작은정원 조성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봄철을 맞아 본관 1층 광장 플랜드 하우스에 다채로운 봄꽃으로 작은정원을 조성했다. 해당 정원에는 포토존과 힐링쉼터 공간도 마련돼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운영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 농협 목포유통센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농협 목포유통센터(지사장 정석영)는 최근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기금은 목포시에 거주하지 않는 유통센터 임직원 26명이 목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이들은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 등에 사용하는 의미있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정석영 지사장은 "농협 목포유통센터는 이번 기부를 통해 목포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2023. 3. 22 (수) 서구청 이음홀(3층)



## 광주은행-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정장 김이강)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김이강 정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36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광주은행은 대출 취급 시점에 6.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광역시

시 서구에서 4.0%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변동주기 도래 전까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현기 부행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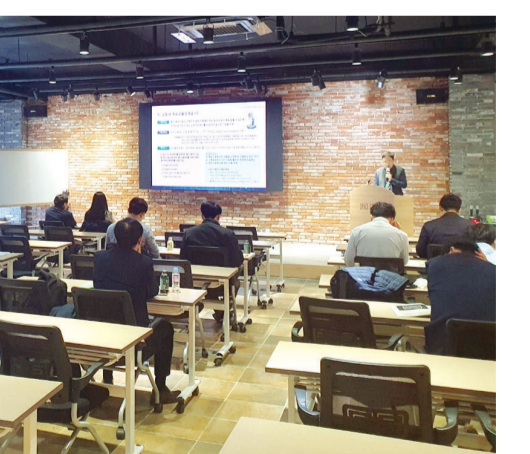
한편,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총 94억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7억원을 특별출연했으며, 올해만 광주시 및 동·서·북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12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로 인해 올해 확정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총 354억5000만원에 이른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경총, 중기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열어

광주경총(회장 양진석)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나주 스페이스 코워킹 2층 타운홀에서 '2차 2023년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광주 평동산업단지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나주지역 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고용혁신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출산육아 지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자 계속고용금 등을 소개했다. 광주경총에서는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 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참여 문의는 광주경총 총괄사업



본부 전화(062-654-3426)로 하면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4.48(+7.52)
↓ 코스닥	812.19(-1.24)
↓ 금리(국고채 3년)	3.206(-0.078)
↓ 환율(USD)	1278.30(-29.40)